

평신도 신학과 기독교적 세상관

제 1 강: 평신도 신학의 기초

I. 성경이 말하는 “평신도”

(1) 성경적 근거

- (i)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로서의 “평신도” -- 목회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는 나타나지 않는다.
- (ii) 가장 가까운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의 **라오스(laos)**라는 단어가 있다.

(2) **laos**의 의미

(i) 세 가지 용법

- ① 어떤 특정 국가나 민족의 뉘앙스 없이 그저 백성, 대중, 군중 등의 뜻으로 사용 (눅 20:9; 행 6:12).
- ② “이방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 (마 2:6; 행 7:34; 히 11:25).
- ③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 (딤후 2:14; 히 4:9; 벧 2:9-10; 계 18:4).

(ii) 우리의 이해

- 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적실성이 있는 용법은 물론 (i)의 ③이다.
- ② 대표적 성구

벧전 2:9-10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3) 정리

- (i)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평신도”의 근원적 단어는 신약의 **laos**이다.
- (ii) 그러나 **laos**는 하나님의 백성(laity)을 통칭하는 말로서 성직자 여부, 직분의 고하나 유무를 막론하고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켰다.
- (iii) 오늘날 우리가 전제하는 구분 -- 성직자와 평신도 --은 성경 이후 시대의 산물이다.
- (iv) 올바른 개념 이해
 - ① Markus Barth: “교회 전체, 즉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성직자이다” (*The Anchor Bible: Ephesians*, p. 479).
 - ② 의미하는 바
 - a. 평신도(laity)나 성직자(clergy) 모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한다.
 - b. 흔히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성직자” 역시 평신도(하나님의 백성, laity) 가운데 일부이다.
 - c. 동시에 소위 “평신도” 역시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성직자이다.

II. “평신도”에 관한 역사적 개관

(1) 초대 교회 이후

(i) 고대 사회에서의 사용

- ① **laos** > lay: unqualified to speak or judge in various fields of knowledge and science; an ignorant, uneducated one [門外漢].
- ② 도시 국가에서의 두 계층
클레로스 (kleros, magistrates, 行政官) + **라오스** (laos, people, 平民)

- (ii) 1C 말부터 일반 회중, 교인, 평신도와 대비되는 바 안수 받은 성직자 그룹이 특별한 신분의 계층으로 등장.

(iii) 교회 구조의 이중성 등장

- ① 미사/성찬의 집전자 [교회 직분자]와 성찬을 받는 자 [일반 신도] 사이에 구분이 생김.
- ② 이는 구약에서 제사장 vs. 일반 백성 (cf. 히 5:3; 7:27) 식의 구분을 본뜬 것.
- (iv) 3C 부터 감독과 목사들은 사제(priests)라 불리고, 반대 개념인 “평신도”는 비(非)성직자(non-clergy)를 가리키게 됨.

(2) 종교 개혁 당시

- (i) 종교 개혁 초기는 RC의 성직주의(clericalism)에 반대하는 기세가 높음.

① Luther의 경우 (*To the Christian Nobility*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사제들/성직자들(priests)이고 직분에 관한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 세례를 받은 이는 누구나 자신이 사제, 감독 혹은 교황과 마찬가지로 성직에 임명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② 주장점

- a. 만인 제사장설(priesthood of all believers): 성직자와 비성직자 사이의 차등을 반대.
- b. 소명론(calling):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

(ii) 비판(Hendrik Kraemer, *A Theology of the Laity*, pp. 63-65)

- ① Luther나 Calvin이 그렇게 교회 개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신학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② 세 가지 이유

- a. **개혁의 중점 영역:** 종교 개혁자들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개혁을 목표로 하여 “이 신칭의”를 강조; 따라서 이러한 신앙 내용에 반대되는 것 -- 성경 해석, 교황의 위치, 교회 조직 등 --에만 개혁을 시도; 부분적으로 성직자 vs. 평신도의 이중 구조에도 신경을 썼지만 전폭적으로 성경적이지는 않았다.
- b. **개혁의 주도 세력:** 종교 개혁자들 자체가 성직자 출신의 지도자였던 반면 일반 신도들은 신앙적으로 어리고 미성숙한 이들이었음; 따라서 그들에 대해 “너희의 영적 신분은 사제들과 같다”라고 해봤자 깨달음이 없었고 여전히 무지한 그룹으로 남게 되었다.
- c. **또 다른 이중성:** 종교 개혁자들은 RC에 비해 성례보다는 말씀의 선포에 더 많은 강조를 둬; 이렇게 말씀 선포가 강조되자 그런 사역을 하는 계층 [말씀의 선포자/목사들]과 그런 사역에 도움 받는 계층 [일반 신도들] 사이에 구별이 지어짐; 중세의 이중 구조 -- 성례의 집전자와 일반 신도들 --가 이제는 또 다른 이중 구조 -- 말씀의 선포자와 일반 신도들 --로 대체되기만 했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중성 자체는 여전히 남게 되었다.

(3) 20C

(i) 에큐메니컬 운동: 평신도 운동의 재발견

- ① 19C의 뿌리: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SCM(Student Christian Movement) etc.
- ② 세속화 신학: 교회와 세상 사이의 구분을 “제도적”으로 이해하지 않음.
- ③ 평신도 학술원(lay academics)의 설립: 1940년대 유럽의 각국에는 평신도를 위한 대화 및 토론의 장(場)이 마련됨.
- ④ WCC의 출발: WCC 안에 평신도 분과 (Laity Department) 설치.

(ii) Vatican II (Second Vatican Council)까지의 발전: Roman Catholic

① 평신도 사도직 (lay apostolate)의 부각.

- a. 1922년 피오(Pius) 11세: “평신도는 사도적 성직(hierarchical apostolate)에 참여해야 한다.”
- b. 1946년 피오(Pius) 12세: “평신도(비성직자)는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

에 그들이 바로 교회이다.”

- ② 1951년 및 1957년: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세계 대회를 로마에서 개최함.
 - a. 교회의 사도직에 평신도가 참여할 것을 강조.
 - b. 인류 동포에게 전도자가 될 소명 및 세상 환경의 여건을 인간미 있게 바꿀 소명을 강조.
- ③ Vatican II (매우 의미심장한 종교 회의)
 - a. 1964년 Dogmatic Constitution on the Church 발표.
 - b. 그 가운데 평신도에 대한 장(章)이 있음.
 - ㉠ 모든 수세자(受洗者)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 ㉡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 ㉢ 평신도는 세상의 소금이며 누룩이다: “평신도는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와 환경 가운데 교회를 드러내고 영향을 끼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III. 평신도 신학의 토대가 되는 사항들

(1) 목회자와 평신도: 공통점과 차이점

(i) 같은 신분 다른 은사/기능

- ① 동일성 [status]: 목회자나 교우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신분을 갖는다.
 - a.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 b. 함께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이다.
 - c. 그리스도 몸 가운데 같은 지체 (one of the members)이다.
 - d. 목회자는 그리스도처럼 머리가 아니고 지체이다.
- ② 차이점 [function]: 목회자는 교우들과 다른 점이 있다.
 - a. 교우들과 달리 목회자의 은사 -- 리더쉽, 말씀 가르침, 목양 등 --를 하나님께로서 받았다.
 - b. 이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다른 기능[임무, 직분, 사역]을 감당한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

항목	동일성과 상이성	같은 status	다른 function
(i) 호칭/지칭		* 형제 · 자매 * 그리스도인 * 제사장	* 목회자-교우 * 목사-신도 * 지도자-피지도자
(ii) 근거		은혜의 수여 *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 * 십자가 사랑의 표적 * 성령님의 내주	은사의 부여 * 목사 (엡 4:11) * 다스리는 자 (leadership) (롬 12:8) * 다스리는 것 (governing) (고전 12:28)
(iii) 인식 가능성		눈에 잘 띄지 않음	눈에 잘 띌
(iv) 유효 시기		영구적: 천국에서도 보존	일시적: 천국에서는 폐지
(v) 강조		관계	직분
(vi) 지향점		being	doing
(vii) 교회에서의 위상		교회의 기초	교회의 상부 구조
(viii) 세상과의 비교		세상에는 없는 특성	세상의 본질적 특성

(ii) 혼선의 좌소: 한국 교회의 그릇된 목회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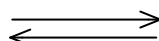
- ① 핵심: 차이점 [function]을 동일성 [status]의 수준까지 끌어올림: 즉 목회자는 function에 있어서뿐만 아니고 status에 있어서도 평신도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
- ② 혼선의 요인들
 - a. 구약의 직접적 적용: 성전, 축복, 제사장 등의 개념에 있어 구속사적 발전을 무시함.
 - b. 우리의 혼합주의적 세계관: 목회자가 마치 shaman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해.

- ㉠ magic과 religion의 차이.
- ㉡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달래고” (제사는 “뇌물” 같은 역할) 좌지우지하려는 생각.
- ㉢ 개인의 운명이나 길흉화복에 지대한 관심 (성경의 “예언” 오해).
- ㉣ 하나님에 대한 비굴한 두려움 (cf. 무서워 하는 종의 영 (롬 8:15); “심판”의 두려움).
- c. 유교식 선생과 제자: 종적 인간 관계 형성.
- d. personality cult: 자신을 어느 유명 인물과 연계시키고 그와 identify하려는 욕구.
- e. 호칭의 문제: 성(姓)에다 직분명을 붙여서 부르는 문화; 그러나 사실 호칭이 그의 person은 아니다 (친해지면 이름을 부르는 서양과의 차이).

(2) 두 가지 각도에서 본 교회

고전 11:18

요 20:21



- (i) 특징: 예배 [교제, 교육, 봉사] 공동체
- (ii) 중심: 교회당
- (iii) 일시: 주일
- (iv) 주도: 목회자

- 선교 [생활, 전도, 봉사] 공동체
- 생활 현장, 세상
- 매일
- 평신도

IV. 평신도 신학의 실천을 위한 준비

(1) 두 가지 type의 평신도 (Mark Gibbs and T. Ralph Morton, *God's Frozen People*, pp. 22-23)

사항 \ 형태	type A	type B
(i) 명칭	세상 속 평신도 ("worldly" laity)	교회 내 평신도 ("churchy" laity)
(ii) 주관심	교회당 밖의 세상사 -- 직업상 경력, 상업, 교육, 정치, 가정 생활 등 --에 깊은 관심.	교회당 경내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다양한 교회 사역 -- 설교, 주일 학교 교육, 재정, 교회 행정 등 --에 몰두함.
(iii) 하나님 섬김의 통로	주로 세속의 직업을 통하여	교회 내의 여러 가지 책임 완수와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하여
(iv) 비율	대부분	소수

(2) 모이는 교회와 평신도의 역할

(i) 평신도의 참여도를 결정하는 요인들

- ㉠ 목회자의 type/수용도/gift
 - a. 평신도에 대한 인식/이해/방침과 관련하여
 - b. 포용적?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배타적?
- ㉡ 회중의 style/교육 정도/분위기
 - a. 청년부/대학부의 유무 및 활동 정도
 - b. 회중 내 대졸/ 40-50대/ 지식층의 비율
- ㉢ 어떤 개인이 봉사하고자 하는 영역
 - a. 다른 평신도와 같은 봉사 활동 (주일 학교, 구역, 성가대, 선교, 제직 etc.)
 - b. 교육/양육/훈련 분야
 - c. 독특한 영역 (문서, 사회 봉사, 학문과 신앙, computer work)

(ii) 여러 가지 형태의 참여

- ㉠ 목회자가 포용적 (혹은 긍정적)이며 회중 내 지식층의 비율이 높은 교회

- a. 다양한 사역과 새로운 type의 사역/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b. 정해진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새로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c. 자발성 · 능동성 ·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
- ② 목회자가 최소 중립적이며 전통적인 type의 교회
 - a. 그 교회가 지금까지 해 온 프로그램 가운데 자기의 적성과 gift에 맞는 것을 찾으면 된다.
 - b. 윗사람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정도만큼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 c. 교육/양육/훈련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하다.
- ③ 목회자가 부정적(심하면 배타적)이며 회중의 교육 정도가 대체로 낮은 교회
 - a.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평신도 주도의 활동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 b. 전문인이나 지식층의 성도라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봉사적 적실성이 부여되지 않는다.
 - c.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할 경우 까딱 잘못하면 비판주의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3) 흠여지는 교회와 평신도의 역할

(i) paradigm shift의 필요성

전통적 교회관	vs.	새로운 교회관
① 목회자 위주	---->	그리스도인/교우 주도
② 교회당 중심	---->	세상/삶의 현장 초점

(ii) 세 가지 중요한 개념

① 소명(vocation)

- a. 하나님의 소명은 소위 “성직자”라 불리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의 종사자에게 다 해당된다.
- b. 어떤 직업이 거룩한 것은 그 직업이 특정 분야[종교적 영역]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 c.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삶의 활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이다.
- d. 성경적 근거

④ **교전 7:17**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⑤ 의미: 주께서 각 사람에게 배당하신, 곧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향하게 된, **삶의 위치**를 그대로 견지해야 하리라 (each one should retain the place in life that the Lord assigned to him, and to which God has called him, NIV).

⑥ 해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소명을 삶의 위치 -- 일상 생활에서의 신분, 위치, 지위 --와 연관시키고 있다; 즉 우리의 직업, 신분, 사회적 위치, 크고 작은 직분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② 선교(mission)

- a. 선교는 초문화 사역(cross-cultural ministry)이나 사역의 종류에 대한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훨씬 근원적인 것이다.
- b. 선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 개인 및 공동체 --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일이다.
- c.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보냄 받은 의식(mission-mindedness)과 더불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d. 성경적 근거

④ **요 17: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into)**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into)** 보내었고

⑤ **요 20:21**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㉔ 해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은 의식을 견지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냄 받은 의식에 기초하여 활동한다면, 그 활동이 무엇이든 -- 영적이든 "세속적"이든 -- 간에 이는 선교적 과제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예배(worship)

- a. 예배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인 성도들이 일정한 순서와 예식(ritual)을 좇아 종교적 제의(祭儀)를 수행하는 일이다.
- b. 그러나 이상과 같은 협의의 예배 이외에 광의의 예배도 있으니, 이는 일상 생활의 비종교적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행위와 태도를 지칭한다.
- c.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주일의 공식적 예배 뿐이 아니라 일상 생활의 비종교적 영역에 있어서도 주님을 높이고 섬겨야 한다.
- d. 성경적 근거

㉕ 골 3:22-24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율법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㉖ 의미: 일상 생활에서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 --이라고 밝힌다.

㉗ 해설: 우리는 일상 생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롬 12:1) 연장된 예배의 삶인 것이다.

(4) 실제적 준비

(i) 자신의 정체감 (sense of identity) 확립

- ① 우리는 소명자(召命者)요, 사명자(使命者)이다.
- ② 사명의 내용
 - a. 나는 누구인가? (보냄 받은 자)
 - b. 누가 보냈는가? (왕이신 주님)
 - c. 어디로 보냈는가? (세상 속: 가정과 직장)
 - d. 왜 보냈는가? (증거: 섬김; 예배)

(ii)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 ① 각 방식 (개인 QT, 소그룹 sharing, 공예배)에 참여.
- ② 성경 공부 (practically, in-depth) 및 (기독) 서적 읽기.

(iii) 공동체에서의 훈련

- ① 공동체 생활 (예배, 리더쉽 발휘, 행정적 사항 등)에의 참여.
- ② 은사를 통한 봉사와 contribution.
- ③ 사랑, 교제, 섬김, 권면, 격려, 용서 등을 실행.

(iv) 은사의 끊임 없는 계발

- ① 목표
 - a. 섬기기 위해.
 - b. 다른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저 친구면 확실해" 하는 신뢰 획득).
 - c.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
- ② 영적 은사.
- ③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지식 획득 (어학/computer/전공 과목/전문 분야).
- ④ excellence의 추구: 자신과의 싸움.

평신도 신학과 기독교적 세상관

제 2 강: 평신도 신학의 practice (1): 세상, 선교, 사명

I. 세상(World)과 세속(Worldliness)

(1) 두 가지 구분

- (i) 외형적 영역으로서의 세상(World, W_1): 요 3:16-18
 - ① 사랑의 대상임 (v. 16),
 - ② 인격적 존재: 심판과 구원의 대상 (v. 17),
 - ③ 믿는 자 + 믿지 않는 자 (v. 18) --> 세상 사람들.
- (ii) 내면적 정신으로서의 세상(세속, worldliness, W_2): 요일 2:15-17
 - ① 사랑하지 말 것 (v. 15),
 - ② 세상의 구성 요소 (v. 16),
 - a. 육신의 정욕,
 - b. 안목의 정욕,
 - c. 인생의 사랑.

(2) 두 가지 (W_1 과 W_2) 사이의 혼동

- (i) 약 4:4
 - ① 세상과 벗: 세상 사람들(W_1)과 사귀지 않는 것?
 - ② 공동체에서의 문제 (vv. 1-3),
 - ③ 내면적 정신으로서의 세상(W_2)이 침투함.
- (ii) 고전 5:9-11
 - ① 잃어버린 편지 (v. 9),
 - ② 의미하지 않은 바 (v. 10): 세상(W_1) 밖으로 나감 --> 어불성설,
 - ③ 의미한 바 (v. 11): 믿는 형제에 대한 처리.

II. 네 가지 타입의 그리스도인

(1) 요 17:11-19의 가르침

- (i) in (vv. 11, 13),
- (ii) out of (v. 15),
- (iii) of (vv. 14, 16),
- (iv) into (v. 18),

(2) 네 가지 타입

전치사 타입	in	out of	of	into
(i) 도피주의자 (Escapists)	X	○	X	X
(ii) 동화주의자 (Assimilationists)	○	X	○	X
(iii) 구획주의자 (Compartmentalizers)	○	X	○	X
(iv) 변혁주의자 (Transformers)	○	X	X	○

(3) 소금과 빛 (마 5:13-16)

(i) 두 가지 조건

- ①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 것.
- ② 자신의 독특성을 잃지 않을 것.

(ii) 소금의 예

- ① 짝는 현장으로 가야 함.
- ② 짝 맛을 계속 잃지 않을 것.

(iii) 빛의 예

- ① 어둠의 현장으로 가야 함.
- ② 밝히는 고유의 기능을 잃지 않을 것.

(iv) 결론: “변혁주의자” 타입을 지지.

III. “선교”의 개념

(1) 요한복음의 가르침

(i) 요 20:21

(ii) 요 17:18

(2) 선교의 삼요소

(i) 성자 [원형: one and for all]

- ① 보낸 이: 성부
- ② 보냄 받은 이: 성자
- ③ 보냄 받은 곳: 세상

(ii) 그리스도인 [모형: continuously]

- ① 보낸 이: 성자
- ② 보냄 받은 이: 그리스도인 개인 및 교회 공동체
- ③ 보냄 받은 곳: 세상

(3) “선교”의 구조

(i)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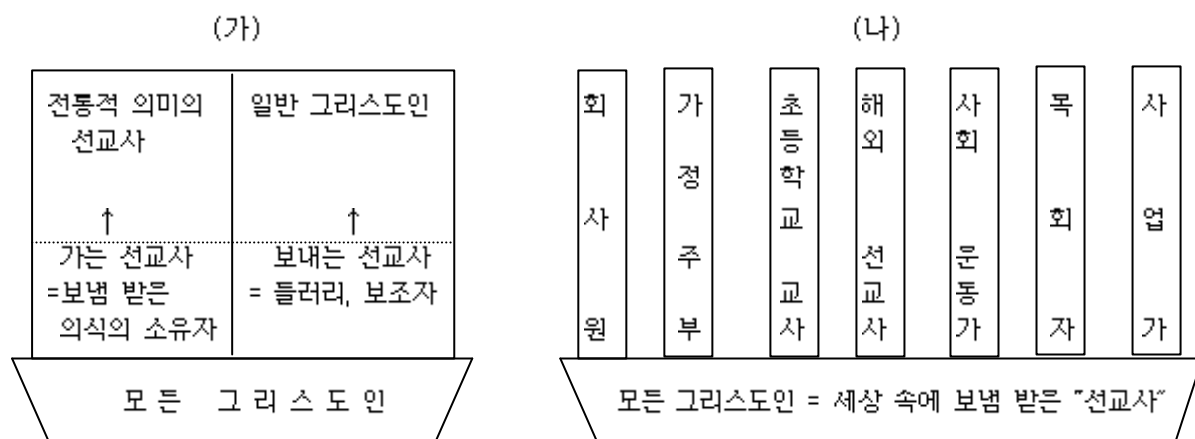
- ① 보냄 받은 의식.
- ②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

(ii) superstructure

- ① 은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양.
- ② 서로 다른 영역에 참여.

(iii) 우리에게 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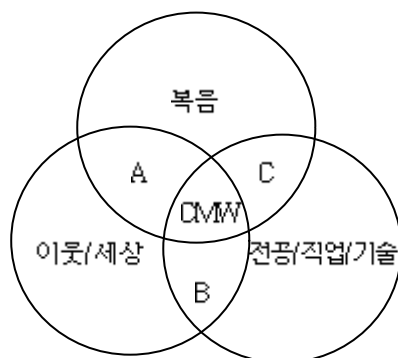
- ① (가) 전통적 사고.
- ② (나) 성경적 사고.



IV.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 사명 (Christian Mission in the World, CMW)

(1) 세 가지 요소

- (i) 복음
- (ii) 이웃/세상
- (iii) 전공/직업/기술



(2) 세 가지 사명의 내용

- (i) [A] 증거 ← 복음 + 세상/이웃
- (ii) [B] 봉사/섬김 ← 세상/이웃 + 전공/직업/기술
- (iii) [C] 변호 ← 전공/직업/기술 + 복음

V. 첫 사명: [A] 증거(witness)

(1) 중심 성구

살전 2:8-10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됴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2) 두 종류의 증거 방식

- (i) stranger evangelism vs. friendship/lifestyle evangelism
- (ii) in word and in deed

(3) 네 요소

- (i) 기도

- (ii) 우정/사랑/신뢰
- (iii) 생활/가치관
- (iv) 복음

(4) 대상 (몇 가지 예)

- (i) 직장인: 상사, 동료, 하급자
- (ii) 가정 주부: 식구, 자녀, 동료 주부
- (iii) 교수/교사: 동료, 학생
- (iv) 의사: 동료, 환자
- (v) 소규모 경영인: 거래처, 고객

VI. 둘째 사명: 回 봉사/섬김(service)

(1) 중심 성구

행 20:33-35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2)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

- (i) 자기의 책임조차도 안 하는 이들 (비윤리적 방식: 탈취, 불성실, 게으름).
- (ii) 자기의 책임만 하고 입 짝 닦는 이들.
- (iii) 자기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남을 돕는 이들.

(3) 섬김으로서의 전공/직업/기술

- (i) 비윤리적 요소의 배제
- (ii) 최선의 노력과 성실한 삶
- (iii) 민감성과 희생적 자세

(4) 근본 요소

- (i) 소명감 (고전 7:17, 20, 24)
- (ii) 종으로의 자세 (막 10:45; 고후 4:5)
- (iii) 일상 생활의 영성 (골 3:22-24)

VII. 셋째 사명: ㉠ 변호(apology)

(1) 중심 성구

벧전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2) 세 가지 방식

- (i) 복음의 의미 밝힘
- (ii) 반박자에게 답변

(iii) 다른 세계관의 약점 지적

(3) 세 가지 영역

(i) 불신자 / 초신자의 의문점들 (몇 가지 예들)

- ①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 ②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는가?
- ③ 교회에는 왜 위선자가 그렇게 많은가?
- ④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우리 아이는 뇌종양으로 죽어야 했는가?
- ⑤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 하는가?
- ⑥ 왜 기독교에는 이렇게 교파가 많은가?

(ii) 신앙인이 갖는 질문들

- ① 용서와 심판
- ② 섬김과 경쟁
- ③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
- ④ 복음주의 · 보수주의 · 개혁주의 사이의 차이
- 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
- ⑥ 구조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방침

(iii) 어린 자녀들이 하는 질문

- ①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 ②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죠?
- ③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 ④ 내 친한 친구는 부처님을 믿는데 죽으면 지옥에 가요?
- ⑤ 우리 개가 죽으면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나요?
- ⑥
- ⑦

(iv) 기독교 신앙과 전공 과목/학문

- ① 창조와 진화 (신앙과 과학 사이의 갈등?)
- ② 사회학/심리학의 기본 문제들
- ③ 기독교 신앙과 역사성 사이의 관계
- ④ 신앙과 이성: 적인가? 동료인가?

VIII. 우리의 준비

(1)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 교제

(2) 현장적 섬김의 훈련

(3) 기초 신학 훈련

(4) 자신의 전공/직업 분야에서의 노력과 열매

제 2 강: 평신도 신학의 practice (2): 소명과 현장

I. 소명론(召命論)

(1) 어의와 명칭

(i) 희랍어 단어들

① 부르다 (καλέω)

a. to call: 요 10:3,

b. to call (into one's presence): 마 2:7,

c. to call (to a participation in the privileges of the Gospel): 고전 1:9,

② 부르심 (καληνις)

a. the call or invitation (to the privileges of the Gospel): 롬 11:29,

b. the temporal condition in which the call found a person: 고전 7:20,

③ 부르심을 입은 (καληνις)

a. called to privileges (롬 16),

b. called to functions (롬 14),

(ii) 우리말

① 소명(召命)

a.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b.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② 부르심

a. 일반적으로는 독립된 단어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b. 기독교 내에서 ① b의 의미로 사용,

(2) 종류

(i) 구원이나 중생과 연결된 부르심

행 2:38-39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딤후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ii) 외형적인 직분/목표/기능으로의 부르심

고전 1: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행 13: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하니

(iii) 내면적 목표로의 부르심

갈 5: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벧전 2:20-21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iv)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

고전 1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전 7:17 왜 주께서 각 사람에게에 나눠 주신대로 [주께서 각 사람에게에 삶의 위치를 배당하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II.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

(1) 이제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이란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제(階梯)에 이르렀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바울의 취급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타나는데, 과연 그가 거론한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에 나눠 주신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랴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원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7:17-24을 소명과 연관 지어 다루고는 있지만, 원래의 문맥은 불신 배우자에 대한 태도 (7:10-16)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비신자와 결혼한 경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둘 다 비신자였다가 배우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때 특별한 예외가 없는 -- 비신자인 한쪽 편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고집하는 일 -- 한 그 대상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cf. 7:13, 15). 그러면서 “남편”이나 “아내”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이 됨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그리고서 바울의 권면이 17절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표점으로 삼도록 한 바 -- 곧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움을 받은 위치 --는 “남편”과 “아내” 뿐이 아니라 “할례자”와 “무할례자” (18절), 그리고 “종”과 “자유자” (21절) 역시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특히 17절에서 잘 밝혀지고 있는데, NIV 역본을 기초로 쉽게 풀어 보면, “주께서 각 사람에게에 배당하신 삶의 위치 -- 곧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 를 그대로 견지해야 합니다” (Each one should retain the place in life that the Lord assigned to him and to which [the place in life] God has called him)라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깔고 고린도전서 7:18-24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쉽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 맞는 삶의 위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위치라는 것이 종교적 신분을 지칭하는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우리는 할례자일 수도 있고 무할례자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르심(종생)을 받았을 때에 할례자[유대인]였을 수도 있고

무할례자[이방인]였을 수도 있다(18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떻든지 그것을 바꾸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19절).

이것은 심지어 사회적 신분 -- 종이나 자유자나 --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 [종생]을 받은 때에 종의 신분이었을 경우도 있고 (21, 22절) 아니면 자유자의 신분이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가 종생할 당시 우리에게 할당된 삶의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21절 상반). 물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구태여 마다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1절 하반).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위치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위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위치에 대한 바울의 소명론은 이토록 17, 20, 24절에 세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정체(正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직업과 긴밀하게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한 개인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그가 견지한 삶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변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학생”이라고, 어떤 이는 “아내”라고, 또 어떤 이는 “한국인”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이 모든 답변이 모두 삶의 위치와 연관이 됩니다. 질문을 조금 바꾸어 “당신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혹은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로 표현해도, 답변은 비슷할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위치란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 또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견지하는 관계나 역할 [집권자-백성, 남편-아내, 부모-자녀, 교수-학생, 친척, 친구, 한국인 등], 공적으로 확인되고 인정하는 신분 [학생, 과학자, 가정 주부, 회사원, 정치인, 기업가, 외교관, 방송인, 종교 지도자 등], 또 우리가 종사하는 각종 직업 분야 [가수, 육상 운동 선수, 식당 경영, 유전자 연구소 근무, 국어 교사, 은행 지점장, 공군 장교, 배기공, 미화부, 부동산 소개업 등]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야말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3)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없이 이렇게 삶의 위치로의 소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지하고 또 게을러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이 실은 주님의 소명을 이루는 귀중한 사역지임을 상상조차 하지 않고 삽니다. 성직자, 목회자, 전임 사역자 등의 용어로 지칭되는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 삶의 위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과격하고 비(非)정통적이며 최근 세상으로부터 유입된 성경 외적(外的) 사상으로 치부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종교 개혁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경우 소명(Beruf)이란 근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위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부여 받는 여러 가지 관계와 사회적 신분 -- 이것이 바로 삶의 위치인데 --을 통해 우리의 임무를 다함으로써,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책임성 있게 자녀를 돌보고, 집권자는 자신의 권세를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사용하며, 선생은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다양한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명한 바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삶의 위치로 부르신 소명예의 충실함이 단지 이웃 사랑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위치로의 소명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 고상한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가운데 여러 자원들과 잠재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데 있어서는 황궁하옵게도 우리 인간의 활동과 참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한 수확의 즐거움을 허락하시지만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안정된 사회 생활을 향유하는데, 그것은 바로 위정자들의 봉사와 헌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의 위치로의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또 다른 종교 개혁자 칼빈 (John Calvin, 1509-1564)의 교훈에 있어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그는 루터의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소명을 성취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을 닮는 일과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비활동적이고 정적이며 나르시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시고 부지런하며 활동적인 분이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일에 쉬지 않고 참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위치로의 소명을 인정하여 이웃을 섬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위치로의 소명에 충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구성원들의 영적 은사를 통해 유지되듯이 (e.g., 고전 12:12-27), 일반 공동체인 사회 역시 그 구성원들이 상호 간의 유익을 위해 자기가 부여 받은 재능들을 활용할 때 건실한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듯 사회에도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 같은 원리로써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여 받은 바 삶의 위치로의 소명이 아무리 천해 보이고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삶의 위치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그 자체입니다.

(4) 그러나 이러한 소명 의식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아니 언제이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뿌리를 내린 적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서로 연관된 현상들 뿐입니다. 첫째, **소명의 독점화** 현상입니다. “소명”하면 아예 목회자나 해외 선교사 계층과만 연관시킵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 자신들의 태도에서 -- 비록 의도적으로 그런 독점화 현상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 흔히 발견되는 바입니다. 이런 태도가 공공연히 인정되다 보니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삶과 관련해 소명을 운운할 기회도 없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반적인 삶 -- 더욱 구체적으로는 삶의 위치 -- 은 하나님의 소명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때문입니다.

둘째, 처음 현상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소명의 계층화** 경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향은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가 아닌 이들에게도 “소명”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처음 입장보다는 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도 결국에 가서는 온전치 못한 것으로 분류되고 마는데, 그 이유는 “소명”에 있어서도 계층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의미의 소명은 역시 목회자나 해외 선교사에게만 해당이 되고, 소위 “평신도”들과 연관되는 소명이란 어쭙기 짝이 없는 모사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그럼 과연 평신도들의 소명이 무어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경우 그 답변은 아주 모호하게 나타납니다. 목회자를 도와 교회 내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세상 속의

활동과 연관을 짓되 전도나 그리스도인끼리의 연합 예배 등을 거론하는 데 그칩니다.

셋째, **소명의 구체화** 입장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처럼 객관적 측면에서의 기술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형성되는 주관적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즉, 어떤 그리스도인이 소명을 신앙적 영역의 사역이나 영적 성격의 활동과만 연관시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셋째 입장은 앞의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와 함께 주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소명예의 충실” 하면 곧 교회당과 연관된 책임 사항 -- 예배 참석, 봉사 활동 등 --이나, 신앙적 활동 -- 전도, 그리스도인끼리의 모임 결성, 선교 대회 개최 등 --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리하여 학생의 경우, 학교 공부와 캠퍼스 소그룹 준비 가운데 소명은 오직 후자와만 연관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 학사들의 경우라면 회사 일과 성가대 지휘 가운데 역시 후자만이 소명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5) 그러면 도대체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위치로의 소명에 대하여 그토록 무지하고 또 무관심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7장에 그렇게 나타나 있고, 종교 개혁의 신학에 그토록 뚜렷이 자리매김을 한 가르침인데도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토록 철저히 외면 당해 온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항목으로 그 이유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일반적으로 신앙의 이원론적 자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유·불교적 멘탈리티에 있든, 아니면 샤마니즘의 세계관에 기인하든, 또 아니면 서구 교회의 경건주의적 전통으로 말미암든 간에 어쨌든 이원론적 자세는 한국 교회의 신앙적 부흥을 이루는데 큰 토대와 동기 유발을 제공했습니다. 성과 속을 과도하게 구분하고, 기독 신앙의 모든 면모를 전자에게만 귀속시키려 드는 그릇된 열의가 우리의 소명관에도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 도식에 의하면 성직자의 책임 영역은 하나님의 소명과 직결되지만, 일반 신도의 삶은 세속적인 것이므로 도저히 소명을 운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둘째, 목회자가 아닌 이들의 모범이 너무 희귀한 것도 그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아닌 이들 가운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충실히 살아내는 모범적인 인물이 많지 않고, 또 혹시 충실히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진 이라 해도 그런 삶을 영위한 까닭이 바로 삶의 위치로의 소명 의식 때문임을 보여줄 수 있는 “평신도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성숙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 중에 인간의 모범을 좇아서 자극을 받고 변화되는 수가 많습니다. “헌신”하면 목회자가 되는 것만 보아 왔고, 오직 목회자와 연관해서만 “소명”이 언급되는 것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알아 온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타성화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삶의 위치로의 소명을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III. 직업 현장에서의 문제점/어려움

(1) 시간 사용과 “충성”

(i) 현대 생활과 시간

- ① 현대의 특징: 수량화, 실적, 능률, 경쟁, 진보.
- ② 시간 투자가 중요.

(ii) 시간 사용과 충성

- ① 시간을 얼마나 바치느냐? --> “충성”을 바치느냐? --> 삶을 어떻게 사느냐?
- ② 마 6:24 두 주인 섬김

(iii) 캠퍼스(C)와 그 이후 (O) 사이의 차이

	캠퍼스	그 이후
① 심리적 여유	전체적으로 보아 비교적 여유가 있고 시간 사용이 자유스럽다	여유/자유가 거의 없다. 개인 생활 (돈을 받기 때문)
② 주도권	자기가 initiative를 잡을 수 있음. 하려고만 하면 time-management 가능.	자기 목적을 위한 시간 내기 어려움 통제와 타율에 의한 시간 사용
③ 휴식/여가	방과 후 및 방학	방학 없다 (교수직 이외에는); 휴가가 매우 짧다.

(iv) 삶의 균형, 영적 성숙 등이 파괴되든지 둔화된다.

- ①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의식의 약화; 하나님과의 정기적/규칙적 교제 시간 상실.
- ② 신앙 공동체 [교회, 단체] 가정 공동체 [배우자, 자녀] 소홀.

(2) 자기 실현에의 욕구

(i) 성공의 꿈: 승진, 월급, 명성, 권세 (주로 처음 것에 나머지가 다 딸림)

(ii) 결과에 따른 문제점

- ① 이기면 욕심, 상향성(upward mobility)에의 집착이 더욱 심해짐; 떨어질까봐 불안; 질투.
- ② [과정 가운데] stress 받음; 이기기 위해 workaholism, alcoholism, 성적 탐닉, TV나 video 중독.
- ③ 지면 좌절, bitterness, 실망, 자기 연민, 열등 의식, 자학.

(iii) 옳지 않은 세 가지 조치/경향

- ① 도피적/소극적: 승진/월급이 뭐 중요한가? 직장 생활은 필요악에 지나지 않는다. --> 영적 생활이 중요하다 --> 능력 부족과 패배에 대한 교묘한 합리화.
- ② 기복적/보상적: 헌금, 교회 봉사, 전도 많이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승진시켜 주시리라, 대리점 확장 etc.
- ③ 권모술수적/비윤리적: 기독교인으로서 마땅치 않은 것도 서슴지 않음 (뇌물, 경쟁자 죽이기, 허위 조작, 속임수, 협박 etc.)

(iv) 마땅한 태도

- ①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 열매 맺음; 타인의 인정과 신뢰.
- ② 능력이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승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 중요 ↔ '소극적'
- ③ 성실하게 노력: 뿌린대로 거둔다. 가끔 은혜가 있으나 그것은 bonus ↔ '기복적'
- ④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 '권모술수적'

(3) 윤리적 갈등 / 회색 지대

- (i) 술/담배의 문제
- (ii) 차지, 청탁, 뇌물 / 공금 유용 / 몰래 증권(주식) 투자
- (iii) 거짓말
- (iv) 탈세 / 이중 장부
- (v) 과도 경쟁/ 허위 광고
- (vi) 성적 시험 / 성차별
- (vii) 노조, strike

(4) 구조의 문제와 변혁 시도

- (i) 몇 가지 type의 전략
- ① 도피: 회사 그만 둬

- ② 동화: 기독교적 독특성 팔아먹음
- ③ 충돌: 혁명, 폭력 행사, 파괴, 뒤집어 엎음, 단 시간내 해결
- ④ 개량: 장기적, 점진적
 - e.g., Mr. Kim story
- (ii) 성경적 전례 1: 다니엘
 - ① 두 가지 compromises,
 - a. 창씨 개명 (단 1:6-7),
 - ㉠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 벨드사살: 벨 (바벨론의 主神인 마르둑의 명칭)이시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 ㉡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보여주신다” --> 사드락: 아쿠 (수메리아의 月神)의 명령.
 - ㉢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 메삭: 아쿠 같은 이가 누구리요?
 - ㉣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 아벳느고 : 느고神의 종.
 - b. 갈대아 사람의 학문 연마(단 1:4-5): 율법이 금하고 있는 점술 (신 18:9-14).
 - ② 그러나 선이 있었다(단 1:8; 3:12; 6:10).
- (iii) 성경적 전례 2: 오바다
 - ① 엘리야처럼 아합 왕과의 정면 충돌 피함.
 - ② 궁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선지자를 50명씩이나 숨겨 놓음 (왕상 18:3-4).
- (iv) 성경적 전례 3: 나아만
 - ① 몸이 나은 후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고 약속 (왕하 5:17).
 - ② 양해 사항: 주인 때문에 할 수 없이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혀야 함 (왕하 5:18).
- (v) 성경적 전례 4: 노예 제도
 - ① 노예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 엡 6:5; 골 3:22; 딤후전 6:1-2.
 - ② 상관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 몬 1:16; 골 4:1.